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있다. 한강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소설가 한강(54)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증서와 알프레드 노벨이 새겨진 메달을 받았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

의학상, 경제학상 수상자 10명과 블루카펫을 밟으며 입장했다.

시상식에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수상자들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할 때마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이어졌다. 한 작가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에

한국인 최초·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한강 “문학, 생명 파괴 모든 행위 반대”

이어 네 번째로 호명됐다.

아스트리트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시상식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한강 작가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내약함을 심도 있게 탐구했다”며 “올해 문학상은 심연이 변화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항상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인류의 치명적 상태에 빛을 비추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노벨상 가운데 문학상은 스웨덴 한립원이 선정하는데, 전통적으로 문학상은 스웨덴어로 시상 연설을 한다. 올해 문학상 시상 연설은 한립원 종신위원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이 맡았다.

맛손은 연설에서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강의 작품에서 한 ‘흰색’과 ‘붉은색’이란 두 가지 색이 만난다”며 “흰색은 내리는 눈이며, 내레이터와 세상 사이에 보호막을 쳐주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고 빨간색은 삶을 상징하지만, 고통, 피, 칼에 난 깊은 상처를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작가에 대해 “한강의 목소리는 매혹적으로 부드럽지만,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흰색과 빨간색은 한강이 작품 속에서 되짚는 역사적 경험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한 작가의 2021년 작 ‘작별하지 않는다’도 소개했다. “눈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간 영역

에 떠도는 존재들 사이의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을 만든다”며 “소설 전체는 눈보라 속에서 전개되는데, 그녀의 기억을 조각조각 모으는 동안 서사적 자아는 시간의 층을 미끄러지며 죽은 자의 그림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배우는데 결국 모든 일은 그 과정이 견디기 어렵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의 작품에서 경계가 녹아내리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목격한 것들에 의해 무너지고, 그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지만 필요한 힘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잊는 것은 결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 작가가 국왕으로부터 증서와 메달을 받는 순간,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어나 박수를 치며 축하와 경의를 표했다.

한 작가는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노벨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시상식 후 수상자들은 스톡홀름 시청 내 블루홀에서 열린 이어진 만찬에서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언어,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운을 품게 된다”며 영어로 말했다.

한 작가는 지난 7일 수상자 강연(lecture)에서 처음 여덟 살 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소감을 시작했다. 강연에서는 여덟 살 때 쓴 ‘시집’에 나온 한 시를 회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 전반을 돌아봤다.

한 작가는 “읽고 쓰는 데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언어의 ‘실’을 따라 또 다른 마음 깊은 곳으로, 다른 내면과의 만남,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그 ‘실’에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난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등은 수천 년 동안 문학에서 제기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인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어두운 밤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는 언어가 있다. 문학상이라는 상의 의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며 “감사하다”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12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밤’ 행사도 진행된다. /뉴스

조선시대 역사 깃든 ‘적상산사고’ 위상 재조명

무주군, 내달 31일까지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쇄 재연 기록 사진전 개최

무주군이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데 기여한 사실을 후손들과 공유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쇄 재연 기록 사진전’을 무주읍 무주상상반디쇼 전시실에서 11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10월에 개최됐던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쇄 재연’ 행사 때 촬영한 사진으로 이안사가 동향을 알리기 위해 관아로 향하는 파발꾼 ‘소이원(召爾院) 역참 파발마’ 등 50여 점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재연을 위해 지역 주민 300여 명과 무주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의식의 절차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습을 통해 이안행렬과 포쇄의식의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화되었다.

무주문화원이 주관으로 자연특설시 무주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이번 전시전은 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맹감상 무주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는 적상산 사고의 고장으로서 무주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며 “전시가 단순 행사로서가 아니라 조선 472년의 역사를 품은 무주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300년 가까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쇄 재연 기록 사진전’이 무주읍 무주상상반디쇼 전시실에서 11일 개막했다.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우리 조선들의 송고한 노력이 이번 재연을 통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조선왕조실록 포쇄·이안 재연을 위하여 무주군민 300여 명이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기록된 사진전이다”

며, “무주다움이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관람객에게는 무주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계승하려는 의지와 모임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공유전시 개최

완주문화재단, 내년 2월 2일까지 8명 시각예술 작가 작품 전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결과공유전시 〈결실〉(이하 ‘결실전’)을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전관에서 열고 있다.

‘결실전’은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한 8명의 시각예술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로, 각기 다른 주제와 개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지는 작가의 따뜻한 동지 같은 옷칠 작품 ‘뽕-Nest’와 최심 작가의 ‘고래와 소녀’ 전시를 시작으로, 류재현 작가의 원초적 자연의 초록 이미지를 담은 ‘FOREST, BREATH of WIND’와 조누리 작가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하늘을 그린 ‘TIME’ 전시가 이어진다.

2025년 1월에는 권성수 작가의 ‘connect’ 전시와 전설희 작가의 옹기로 만든 차 도구를 선보이는 ‘뽕:다(茶)’ 전시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통해 세상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최춘기 작가와 그의 조카 홍성미 작가의 2인전 ‘같이 가지있게’와 함께, 지난해 개인전 ‘인목(眼目)’에 이어 올해는 ‘애호(愛好)-사랑하고 좋아함’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완주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창작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준비지원’ 창작 결과 발표를 지원하는 ‘결과지원’ 기존 발표작을 수정·보완하여 재발표를 돕는 ‘다시지원’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예술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주형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더욱 섬세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시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각 전시마다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1일 송년공연 열린다

추억·희망 주제 국악 무대 선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송년공연 ‘새출발 New Beginning’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4년의 추억을 되새기고, 다가올 2025년을 희망으로 맞이하는 무대로, 첫 주제인 ‘추억’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 속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기억들을 전통음악과 춤으로 풀어내며 △기악독주로 청성자진한잎 △창작 무용의 연구무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중 사랑가와 이별가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 주제인 ‘희망’은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기악독주로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남도 민요인 새타령 △판소리 입체창 흥보가 중 흥보 바라는 대목 △전통연희 판굿이 희망의 에

너지를 전하며 공연의 매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전·현직 명인들이 함께하며,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다짐하면서 원로 국악인들의 기량과 노고를 기리고 후배 국악인들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김무길(前 예술감독), 박양덕(前 예술감독), 왕기석(前 국립민속국악원장), 유수정(現 예술감독) 명인들이 함께 빛어내는 무대는 전통의 깊이와 예술적 감동을 선사해 후배 예술가들에게는 희망과 영감을 전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에게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제작한 2025년 신년 달력이 증정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예약은 전화,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또는 공식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진행되며, 취학연령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희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윤철규 개인전 ‘인생은 즐거워’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2~22일까지 서울분관에서 윤철규 개인전인 ‘인생은 즐거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가까운 주위의 풍경과 인물들을 소재로 삼아 일상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는 회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화면에는 골목길, 별반, 모악산, 초록바위 등 작가가 거주하는 동네의 명소가 등장하며, 가족 또는 지인과 같은 가까운 인물들이 다양한 표정을 지닌 채 나타난다. 또한 두터운 표면 질감(임파소트 기법)을 통해 무게감과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화면을 그려낸다.

작가의 이번 전시명은 ‘인생은 즐거워’다.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고 때때로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 작가는 그래도 ‘살아 불탄한 세상’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이번 전시에 담고자 했다.

작가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그려며 ‘사회·삶·예술’과의 소통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의 전시를 통해 작가로서의 현 위치를 조망하고,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해 전북의 풍경들을 담은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철규 작가는 전주, 서울, 프랑스 파리 등 국내외에서 17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3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주요 참여 단체전으로는 ‘중구 강소성 교류전’, ‘2022 아시아 그리고 삶’과 서울아트센터, 군산 새만금 아트페어 등이 있다. 또한 2017년 ‘제2회 전북위상작가에 선정되고, 2019년 ‘제30회 전주시 예술상’, 2021년 전북문화재단의 ‘이팝프렌즈 예술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정이회, 햇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